

## 납북자·국군포로 문제 해결 추진상황

- '04년 5월 현재 휴전이후 납북된 자 중 미귀환자는 486명, 국군포로 500여명이 북한에 생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
  - 한편, 6.25전쟁 기간중 납북자는 당시 통계연감에 따르면 8만여명으로 기록
    - 1956년 6월 15일부터 8월 15일 기간중 대한적십자사가 실시한 실향사민 조사결과 7,034명이 등록한 바 있음.
  - 국방부는 6.25참전 행방불명자(실종자)를 1만9천여명으로 파악하고 있으며, 이 중에 미송환 국군포로가 상당수 포함되었을 것으로 추정
    - 최근 귀환한 국군포로와 북한이탈주민 등의 증언을 기초로, 2004년 현재 국군포로 500여명이 북한에 생존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, 이중 38명이 탈북과정을 거쳐 귀환
  
- 정부는 납북자 및 국군포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장관급회담, 적십자회담 등 여러 대화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북측에 제기
  - 다만, 북측이 납북자·국군포로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근본적인 해결이 되기 전까지는 이산가족교류에 포함시켜 생사확인·상봉을 추진하는 현실적인 접근을 병행
    - 참여정부 출범 이후에도 5차례 남북장관급회담과 제5차 남

- 북적십자회담('03.11.4~6)에서 납북자와 국군포로들의 생사·주소 확인사업을 진행할 것을 북측에 강력히 제기
-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2004년 제9차 이산가족 상봉행사시 3가족이 상봉한 것을 포함하여 그간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통해 17가족의 납북자와 국군포로가족이 상봉
  - 한편, 정부는 납북자 관련단체들과의 협조를 통해 문제해결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해 나갈 방침
    - 납북자가족모임, 납북자가족협의회 등과 수시 접촉, 의견 수렴 및 정부정책 설명 추진
  - 앞으로도 대북협의를 과정을 통해 북측을 설득, 문제 해결에 실질적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임.

//끝//